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수도요금 관련법규 개선

(생활)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건물매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승계토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새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부터만 부담하면 된다.

여름철 기상상담실 운영

여름철 방재기간(6~10월)에 기상상담실이 운영된다. 기상청은 지난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동안 기상리포터 경력을 지닌 상담요원 2명을 전담 배치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전국의 기상 상황과 기상특보 현황, 특이 기상현상, 일반 기상상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02)831-0365

직장인 야간법률상담

(상담) 가정법률상담소는 근무로 낮시간에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 '직장인 야간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분야는 주택임대차, 가사채권채무, 고통사고, 형사사건 등이며, 매주 10여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상담에 응한다. (02)780-5688

경찰관 차량정비서비스

(교통)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고속도로와 시내 각 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으로 곤경에 처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교통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해 도와주는 응급조치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로 주행중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연료가 떨어졌을 때, 또 밧데리가 방전돼 시동이 안걸릴 경우 운전자들은 카센터에 연락할 필요없이 112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름샤워 미지근한 물로

(건강) 여름철 여성 건강 목욕법. 각질제거 기능이 있는 보디클렌저로 불필요한 각질층을 살짝 벗겨낸다. 샤워할때 물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다. 마무리 때 약간 차가운 물로 발등부터 목까지 서서히 샤워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욕조목욕을 해 근육의 피로를 풀고 피부속 노폐물도 없앤다.

철로 만든 맥주캔 개발

(새상품) 올 하반기에 알루미늄 대신 철로 만든 맥주 캔이 등장한다. 포항제철은 OB·하이트·진로쿠어스 등 국내 맥주 3사와 공동으로 스틸 캔 설비제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포철은 오는 8월부터 시범 판매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전국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이옥신 오염 식탁불안

◇다이옥신 파동 이후 소비자의 발길이 끊긴 서울 한 백화점의 돼지고기 판매대.

청산가리보다 독성1만배…암 등 유발
정부 섭취허용 기준도 없이 무대책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더이상 없다.' '다이옥신' 파문으로 최근 전세계가 난리아닌 난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간이 합성한 물질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모두가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오염을 줄이면 다이옥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발암성이 높은 화학물질. 염소 등 특정 화학물질을 만드는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독극물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약 1만배나 높다. 주로 쓰레기 소각로, 화학공장, 비료공장 등에서 배출되며 화산폭발이나 삼림화재 등으로도 발생한다.

▲안전기준치=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의 1일 다이옥신 노출 허용치를 체중 1Kg당 1~4pg(피코그램)으로 정해놓았다.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다.

▲다이옥신 오염 가능식품=이번의 경우처럼 주로 육류 및 유제품에서 발견되나 생선, 과일, 야채에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등어, 갈치, 조기, 대구 등의 어류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도 지난 8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굴, 잡어, 도다리 등 어패류에도 감염돼 있다. 닭고기나 달걀,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다이옥신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은 피부병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는 암을 유발하고 인간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행동이상, 당뇨병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다이옥신 오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암에 걸리고 생식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이옥신 허용치를 1일 1~5피코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몸무게 70Kg의 사람은 매일 70~350피코그램을 섭취해도 무방하다. 다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환경이 다이옥신에 오염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총량은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대응실태=수입육류 1차 관문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유통 점검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사장비 등 검사능력이 없다. 게다가 다이옥신 하루 섭취허용량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이번 파문에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늑장 대응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환경과 우리몸 둘아니다"

〈증아함경〉에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주관적,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불교는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해왔다. 다이옥신 공포는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환경을 해쳐온 자업자득의 결과다.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소유물로 여긴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다이옥신 파문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생이나 다름없다는 불교적 해석이 가능하다.

정각스님(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불교의 환경친화사상으로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재벌-세무원 順 가장 부패한 직업 꼽아
리서치앤리서치 '국민의식 조사'

가장 깨끗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부패했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 사회의 부패 및 청렴도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 재벌총수, 세무공무원, 고위직공무원, 대기업사장 등을 가장 부패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나 단체중에서는 국회, 검찰, 기업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중앙부처, 법원, 연예계, 광역시도, 시군구, 청와대 등도 뒤를 이어 부패단체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권력기관과 지도층 인사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한 것은 사회통합과 국가안위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직업별 "부패하다" 응답률

순위	직 업	%
1	정치인	96.3
2	재벌총수	91.8
3	세무공무원	88.3
3	고위직공무원	88.3
5	대기업사장	87.1
6	경찰관	84.0
7	변호사	76.9
8	검사	75.4
9	판사	64.0
10	하위직공무원	63.5
11	기자(언론인)	62.4
12	대학교수	56.5
13	의사	50.1
14	중소기업사장	48.9
15	노조간부	48.5

시론
이산가족의 숙원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 지난 3일 남북간의 대화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16년전의 눈물겨운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몇십년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연출했던 이산가족찾기는 TV앞에 앉은 온 겨레의 가슴을 적셨었다.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는 드라마.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감동의 드라마를 또 만들수 있을까.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세기의 전환점에 임박해서 또다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게 됐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겪고, 거기에다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겨레의 삶은 거센 파도의 격랑을 헤쳐오며 고통으로 점철된 눈물의 세월이었다. 그런 우리 삶에 다시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이 살아온 20세기와 함께 묻히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던가. 이제 우리들 남북인은 진지하고 차분한 노력으로 21세기의 출발과 더불어 새 민족사의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김대환
〈통일사회문화연구소장〉

> "헤어짐의 반백년 정치적 논리떠나 무조건 상봉해야"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들은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차원높게 바로잡아 진실과 성심으로 실사구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화목한 상봉을 위해 베이징에서 차관급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문제와 고향방문단 왕래, 서신교환 문제까지 논의하고 21일부터 다시 차관급 회담을 열고 남북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 9월쯤이면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날이 기다려질 뿐이다.

사실 고향방문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5년에 이뤄진 바 있었고, 89년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가 "내부 후유증이 적지 않아 다시는 않겠다"는 북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중단된 채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번 6·3합의는 잘만 진행되면 남북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아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의 저력이 어떤 것인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본질은 하나의 민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2백여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일민족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이나 일본 등 몇몇 국가뿐이다. 단일·동질의 민족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우리는 민족국가라 부른다. 그렇기에 우리사회는 역사적·전통적으로 단일의 민족국가로서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바탕아래 대가족제도를 유지해왔다. 그런 가족제도 아래에서 가족간의 이별은 비극이고 한(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비극과 한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고, 분단의 절규를 조금만 더 내 삶의 절규로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지금쯤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로 다시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동서독은 70년대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 자유로운 우편과 통신의 교류끝에 민간주도의 통일기반을 구축하고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며 참고 기다려왔다. 단지 한 핏줄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시간이 흘러 아픔이 묻히기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상처를 입혀서는 안된다. 1천만 이산가족들은 재결합까지는 안되더라도 고향방문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가족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감격의 드라마를 다시 한 번 연출해보자. 가족상봉의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제품

걸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5개이상 주문하시면
우체국	013805-0068619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신수·궁합·택일·길흉·방위·진로·선택등을 기초부터 완전한 단명에 이르기까지 특별강의하오니 개업·부업을 희망하시는 수강인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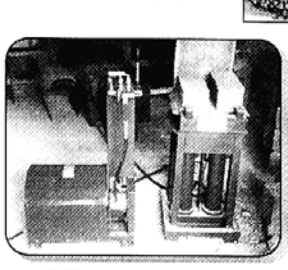
◐ 강의시간 : 매주(화.목.토) 2시간씩 3개월
◐ 오전반 : 10시 ~ 12시 ┐
◐ 오후반 : 2시 ~ 4시 ├ 각 2시간씩
◐ 저녁반 : 6시 ~ 8시 ┘
◐ 개강일 : 1999년 6월 10일부터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3 FAX. 02)713-4853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